

제 6 집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신채호 주요섭 등 소설

20세기 중국조선족
문학사료전집

제6집

신채호 주요섭 등 소설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편

연변인민출판사

责任编辑: 崔东日

责任校对: 崔顺兰

技术设计: 郑善淑

图书在版编目(CIP)数据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6辑: 朝鲜文 / 李光
日主编.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9. 6
ISBN 978-7-5449-0631-9

I. 中… II. 李… III. 朝鲜族-少数民族文学-作品综合
集-中国-朝鲜语(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91.9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2009)第086253号

20世纪中国朝鲜族文学史料全集. 第6辑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960×640 1/16 印张: 51 字数: 7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631-9 (民文)

版次: 2009年9月第1版 2009年9月第1次印刷

印数: 1-500册 定价: 80.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20세기 중국조선족문학사료전집》

편찬위원회

- 고 문: 김병민
- 기 획: 리성권
- 명예주필: 권철 김동훈
- 주 필: 허휘훈

• 편찬위원: (가나다순)

김경훈(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김동훈(전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김호웅(연변대학 조선-한국학연구중심 주임, 교수,
문학박사)

김운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권철(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고문, 교수)

리광일(연변대학 조선-한국학학원 교수, 문학박사)

전성호(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채미화(연변대학 연구생원 원장, 교수, 문학박사)

최문식(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소장, 교수)

최삼룡(전 연변문학예술연구소 연구원)

허경진(한국 연세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허휘훈(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교수, 문학
박사)

제6집
신채호 주요섭 등 소설

책임편집: 권철 리광일
편집자: 권철 리광일 김련향

간행사

우리 조상들은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의 터전을 개척하고 탁월한 저력으로 독자적인 문화를 창출해냈다. 그 풍부한 문화유산에는 삶의 슬픔과 지혜, 역사를 헤쳐나가는 선조의 힘이 숨배여있다. 하기에 우리의 문화유산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난세기 문학사료는 소중한것이고 두고두고 읽어보아야 할 보전(寶典)으로 남게 된다.

과경(跨境)민족으로서의 중국 조선민족은 19세기 후반기 이래로 수차의 문화적격변의 시대를 살아왔다. 이른바 개화기의 격류속에서는 전통문화와 서구문화 사이의 갈등, 한문문학과 국문문학간의 교체를 경험했고 식민지시대에는 국문문학의 문체혁신과 일제에 의해 책동된 전통문화의 쇠퇴, 말살이라는 시련을 겪기에 이르렀다. 이런 변화와 역경 속에서도 이 땅에서 이민 혹은 정착민으로 생활해온 우리 겨레의 지조있는 애국문인들은 결코 붓대를 던지지 않았다. 류린석, 김택영, 신규식, 신채호, 안중근, 이상룡, 김정규, 김소래, 최서해, 렬상섭, 주요섭, 최상덕, 강경애, 현경준, 김창걸, 안수길, 박영준, 황건, 김조규, 윤동주, 박팔양, 리륙사, 함형수, 리학성, 천청송, 김학철, 윤해영, 채택룡, 설인 등 헤아릴수없이 많은 문학도와 시인, 작가들이 바로 필설로써 그 시대를 증언해온 대표적인 지성인들이였다. 그들중에는 고국을 떠나 갈바람에 흩날리는 락엽마냥 정처없이 떠돌다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와 허허늪은 만주별판에서 간도아

리랑을 부른 망향시인이 있었고 하늬바람 불어치는 산해관을 넘어 북경, 서안, 상해, 무한 등 천년고도에 떠돌이로 남아 언론매체를 빌어 “천고”를 울리고 “진단”을 노래하고 청구의 “광명”을 만방에 호소한 청년전위가 있었는가 하면 백산, 흑수, 송료, 제로, 태항, 중원의 고전장에서 용마일생을 수놓아가며 목숨을 바친 무명용사도 있었으며 러순, 나가사끼, 후꾸오까의 감옥에서 단지혈맹의 뜻을 굽히지 않고 다리를 절단해가면서도 끝까지 혁명의 지조를 지켜왔거나 끝내는 “한점 부끄럼없이”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민족의 제단앞에 바친 암흑기의 푸른 별들도 있었다. 그들은 문자에 앞서 온몸으로 지탱해온 삶 그 자체가 더 고결하고 값진것으로 여겨왔던것이다. 그들이 피와 땀으로 가꾸어온 문화의 숲은 험절찬 우리 민족의 에너지를 부단히 충전시켜주는 불멸의 혈맥, 끈질긴 생명력의 고동으로 무성하게 자라고있으며 영광과 비애의 굴곡, 흥망과 성쇠의 기복이 교차되는 수많은 력사주체의 명멸을 간직한채 굳건하고 강인한 기백으로 오늘날까지 민족의 정기를 면면히 이어주고있다.

그들이 남긴 풍부한 문학유산은 그동안 중외(中外)학자들에 의하여 적지 않게 발굴연구되었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단편적인 자료에 근거를 둔것으로서 그 진면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할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중국조선족과 해방전 재중 한인, 조선인들의 문학자료를 체계적으로 발굴, 정리, 출판하는것은 정체적인 민족문학연구에서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 아닐수 없다. 그들이 남긴 문학자료는 지금도 중국 각지와 해외의 여러 도서관, 박물관, 당안관에 신문, 잡지, 일기, 필사본, 프린트본, 활자본 등 형식으로 흩어져있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본 전집은 선배들이 중국땅에 남긴 문학자료들을 집대성하여 후세사람들로 하여금 문화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애국애족의 정신을 계승발양하며 문학, 언어, 력사,

민속, 언론, 사회 등 여러 분야를 망라한 학계 인사들에게 21세기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새로운 비전을 위한 계통적인 연구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과 의의를 두고있다.

중국조선민족문화의 진수를 정리, 간행하기 위한 계획이나 준비작업은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창립과 더불어 20세기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권철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의 조선문학관계 선배학자들은 1950년대부터 벌써 재중조선인 문학자료수집에 착수하였고 1990년에는 권철, 조성일, 최삼룡, 김동훈 등 네 연구원의 공동집필로 된 《중국조선족문학사》를 공개출판하기에 이르렀다. 1992년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연구소는 한국 숭실대학교 인문대학과의 공동연구과제로서 소재영, 권철, 김동훈, 조규익 교수를 중심으로 집필한 《연변지역 조선족문학연구》를 펴냈다. 같은 시기에 김영덕, 최문식 교수를 비롯한 연변대학 고적연구소에서는 《류린석전집》, 《김택영전집》, 《윤동주유고집》, 《한양가》, 《연변조사실록》 등 중국지역에서 발굴, 정리한 17권의 민족고전을 출판하였다. 이와 동시에 문학현장의 사실을 증언하기 위해 두 연구소산하의 수십명 연구원들은 연변의 각 현, 시, 북경의 백림사, 상해의 서가회, 남경의 룡반리, 심양시 서류관, 할빈, 대련, 서안, 남통 도서관, 박물관 등 중국 국내 수백곳의 자료관을 누비면서 해방전 우리 민족의 흩어진 문학자료들이 게재되어있는 《천고》, 《진단》, 《독립신문》, 《민성보》, 《북향》, 《만선일보》, 《카톨릭소년》, 《광복》, 《신한청년》, 《조선의용대통신》, 《한민》, 《연변문화》 등 신문과 잡지 그리고 지난 세기초부터 이 땅에서 류전되었던 《백두산민담》, 《장백산강강지략》, 《초등소학수신용우화집》과 《싸트는 대지》, 《재만조선인시집》, 《혈해지창》 등 최초의 소설집, 시집 및 극본들을 속속 발굴하였으며 무려 1500만자에 달하는 작가문학자료와 800여수의

민요, 2000여편의 전설과 민담을 수집하였다. 그들은 하늘을 비상하는 “나비”가 아니라 발로 땅을 기여다니는 “지네”와 같이 지나간 역사와 문화현장에 뛰어들어 문학현상 자체를 자기의 피부로 촉감하고 확인함으로써 오늘의 이 방대한 민족문학사료전집의 탄생을 준비하였던것이다.

본 전집의 출간과 관련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원칙을 준수하기로 하였다.

첫째, 본 전집에는 중국 조선족작가와 재중 한인, 조선인 작가들이 건국(1949년)이전에 창작한 모든 시, 소설, 일반산문, 극작품 등 일체의 문예작품들을 수록한다.

둘째, 우리 문학의 세가지 큰 갈래인 조선문문학, 한문문학, 구비문학을 통해 역사적으로 이룩한 모든 양식을 함께 수록하도록 한다. 건국전에 창작된 작품을 30권에 나누어 일차적으로 간행하고 이를 확대하여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사료전집으로 되게 한다.

셋째, 구비문학작품은 건국전에 수집된것과 건국후에 수집된것을 망라하며 그 내용이 해방전에 이미 구전으로 전승되었음을 감안하여 이를 모두 1차 간행본에 포함시킨다.

넷째, 언어상으로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일부 원전은 원전과 현대역을 동시에 수록하려 한다. 현대역을 통하여 한문과 원전의 감상을 가능하게 하고 정확한 원전의 제시로 그 연구의 자료가 되게 하려 한다.

다섯째, 건국전의 작가문학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순으로 배열하고 구비문학은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한다. 건국이후의 작품은 2차적으로 그 출간을 계획해보려 한다.

1차 간행에 교부된 작품집 목록은 아래와 같다.

제1집-제3집 시(조선문)

제4집-제5집 한시
제6집-제12집 소설
제13집-제15집 산문
제16집 희곡
제17집 민요
제18집 문헌설화
제19집-제20집 전설
제21집-제29집 민담
제30집 별책(색인)

끝으로 본 전집이 편집, 출판되는 동안 관심있는 모든분들의
협력과 질정을 바라며 어려운 가운데도 이 사업에 동참해주
신 편찬위원, 책임편자, 역주자 여러분과 연변대학 고적연구소
임원들에게 감사를 드린다.

연변대학 조선문학연구소 소장 어휘훈
연변인민출판사 사장 리성권

2008년 8월 15일

일러두기

이 전집은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엮었다.

1. 중국조선족의 기록, 구비문학작품을 비롯하여 재중 한인(漢人), 조선인이 중국지역에서 창작한 작품들을 함께 수록하였다.

2. 20세기 전반기에 창작, 발표된 문학작품을 일차적선제 대상으로 확정하였다.

3. 전집 각권의 출판은 현대시, 한시, 소설, 산문, 희곡, 민요, 전설, 민담 순으로 배열하였다.

4. 한시와 기타 한문(漢文)으로 씌여진 원전은 매편마다 원문을 앞에 싣고 역문을 뒤에 함께 수록하여 상호 참조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5. 원전에 나오는 일부 지명, 인명, 전고, 방언과 알기 어려운 글자, 루락, 오기 등에 대해 필요한 주를 달았다.

주석표기는 원문(혹은 역문)에 번호를 붙이고 해당 면 하단에 각주(脚注)함을 원칙으로 하였다.

6. 고한문 원전은 번체자로 표기하고 리해가 어려운 한자의 경우에는 괄호안에 한자를 넣어 병기하였다.

7. 맞춤법, 띄어쓰기, 외래어 표기는 중국에서의 현행 조선말규범원칙을 따르되 어학적, 민속적 가치가 높은 해방전 원전은 원문 그대로 수록하였다.

8. 이 전집에서 사용한 주요부호는 다음과 같다.

- 1) (): 음이 같은 한자를 병기함.
- 2) []: 음은 다르나 뜻이 같을 때나 혹은 풀이한 한문을 병기함.
- 3) 《 》: 책, 신문, 잡지 이름을 나타냄.
- 4) “ ”: 작품명, 대화나 인용을 나타냄.
- 5) <?>: 불확실한 경우를 나타냄.
- 6) □: 원전 또는 원문에서 누락된 문자를 나타냄.
- 7) 주석은 ①, ②로 표시하여 해당 면 하단에 표기함.

중국체험을 통한 작품세계의 구축

일철

신채호, 주요섭, 최상덕, 김산 등 작가들의 공동점은 그들의 중국체험에 있다. 신채호, 주요섭은 주로 북경과 상해, 최상덕은 상해, 김산은 북경과 연안에 체류하였다. 보다싶이 이들은 당시 이주민들이 집거했던 간도보다는 산해관 이남에서 많이 활동했다. 때문에 이들의 작품이 주목한 점은 안수길, 김창걸, 현경준 등 작가들과 같이 이주민들의 생존과 진로에 대한 진통이 아니라 전반 한민족과 국가의 운명 그리고 생활현장에서 체험한 중국인들에 대한 직시라고 할수 있다. 아래에 이들의 작품세계를 중국문화와의 관련속에서 짚어보려고 한다.

1. 작가 인생에서의 중국체험

상기 작가들의 인생경력에서 특이하면서도 공동으로 되는 점은 이들의 중국체험이다.

단재 신채호는 우리 민족이 낳은 저명한 민족해방운동의 선구자이고 저명한 사학자이며 문학가임은 주지하는바이다. 그의 원명은 채호(蔡浩)였는데 후에 채호(采浩)로 고쳤다. 호로는 단재, 단심, 일편단심이 있고 필명은 무아생, 금협산인, 한놈, 적심, 환진, 연시몽인 등이 있다. 그는 조선 충청남도 대덕군 산내면의 한 한사의 가정에서 태어났다. 가세가 기울어진데다가 8세 때에 아버지를 여윈 그는 편모의 슬하에서 아주 가난

하게 지냈다. 그러면서도 일찍 정언(正言)까지 지내다가 락향하여 사숙훈장으로 있던 조부의 엄한 단속아래에서 글을 배우게 되었다. 슬기롭고 재질이 출중하였던 그는 14세 때에 벌써 유학경전들을 거의 통달하다싶이 하여 그의 당당한 장래가 촉망된다고 린근 마을에서 소문이 자자하였다.

언제나 진취적이고 구지욕이 불타던 그는 때마침 당시의 권문세가이며 개화적인 대학자였던 신기선선생의 총애를 받게 되었다.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는 양원서고의 책을 널리 섭렵하였다. 그리고 양원선생의 추천으로 서울 성균관에 들어가 박사의 임을 맡았던 6년 남짓한 사이에 고심한 연찬을 거쳐 덕재가 겸비한 출중한 학자로 되었다. 성균관에서 학문을 닦던 시기부터 시작하여 문동학원에서 강사를 지내던 시기에 와선 벌써 외래의 침략자를 반대하고 봉건통치배들과 매국적들의 무위무능과 죄악을 신랄하게 폭로하고 단죄하는 정론과 격문을 많이 써내어 민중을 계몽하고 반일민족독립투쟁으로 불렀다.

1905년에 명망이 높던 《황성신문》의 론설위원으로 초빙되었고 1906년에는 《대한매일신보》의 주필 등 중임을 맡아 나서서 당시의 론설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놀았으며 또한 자각적으로 민족독립투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정치적실천에 적극 뛰어들었다. 그는 민족독립운동의 비밀결사인 “신민회”, “청년학우회” 등의 발기에 참가하여 지도자, 조직자적 역할을 담당해나섰다. 1908년 그는 녀성들의 계몽운동을 밀고나가기 위하여 《가정잡지》를 간행하였다. 그리고 또 《대한협회일보》와 《기호홍학회》의 주요 집필자로 활약하면서 무게있는 정론과 사론(史論)을 써냈다. 그는 론설을 통하여 민족주의를 적극 창도하는 한편 출현할 민족영웅들에게 자신의 정치적리상의 실현을 기탁하면서 력대 영웅들의 정신과 업적을 극구 선양하였다. 이에

그는 “과거의 영웅을 사(寫)하여 미래의 영웅을 소(召)할” 목적으로 《이태리 건국 3결전》(번역)을 내고 이어 《을지문덕》, 《동국거절 최도통전》, 《리순신전》 등을 출판하였으며 이런 영웅전기와 배합하여 《20세기 신동국지영웅》 등 많은 사론(史論)을 써냈다.

1910년 4월에 이르러 소위 “일한합병”의 비극이 경각에 일어나게 될것을 예감한 그는 민족적비운으로 인한 절통의 정을 안고 민족독립운동을 더욱 밀고나가기 위하여 중국으로 망명하였다. 이는 그에게 민족독립투쟁을 진행함에 있어서, 그리고 민족의 역사를 정확하게 밝히기 위한 거대한 공정을 벌임에 있어서 새로운 출발점으로 되었다.

신채호는 단동을 거쳐 청도에 이르러 민족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 위하여 열린 청도회의에 참석한후 로씨야의 연해주로 갔다. 거기서 그는 민족독립사상을 고취하며 동지들을 모아 정치투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선후로 《해조신문》, 《청구신문》, 《권업신문》을 간행하였다. 그후 그는 상해에 갔다가 얼마 후에 남만에 이르러 환인에 머무르면서 장백산에도 오르고 고구려 옛터도 답사하였다. 남만지대에서 진행한 이와 같은 역사유적 답사와 민족사자료수집활동은 그뒤 그가 역사저술사업을 벌리는데 큰 도움을 주었다.

1915년 북경에 이른후 역사저술에 달라붙었다. 한편 그는 신정 등과 함께 박달학원을 세우는데 전력하여 청년일대에 대한 교육을 도모하고 동인단체 “동체회”의 발기에도 적극 나섰다. 그리고 “대동청년단”, “대한독립청년단”, “보합단”, “다물단” 등과 같은 여러 반일민족단체들을 일심으로 도와나섰다. 그는 이 시기에 북경 《중화보》(한문신문)에도 민족해방투쟁에 관련된 자기의 글들을 발표하였다.

1919년 4월부터 약 1년 동안 상해에 가 조선림시정부의

요직을 맡았었다. 그러나 당시 임시정부 주요 성원들과의 주장이 맞지 않자 단호히 나서서 그들의 오류적론조를 비판하고 반박하였다. 그 이듬해 곧 상해에서 북경으로 돌아온후 계속 민족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정치투쟁과 문필활동에 정력을 몰부었다. 그는 1921년 1월에 《천고》를 간행하는 한편 동지들과 “통일촉진회”를 무었다. 그는 또 그뒤에 나온 “신간회”의 주요 발기자의 한 사람으로 나서기도 하였다.

신채호는 북경에서 생활하던 10여년 동안 모든 곤난을 극복하면서 역사거작 《조선사통론》, 《조선상고사》, 《조선상고문화사》와 《조선연구초》를 완성하였다. 그리고 그는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려는 정치적열망과 진보적인 미학사상의 지배하에 시 “새벽의 별”, 단편소설 “꿈하늘”, “룡과 룡의 대격전”, 수필 “대흑호의 일석담” 등 많은 성과작들을 내놓았다. 그의 작품은 민족의 각성을 촉진하고 새로운 량만주의문학의 경지를 개척함에 있어서 크나큰 기여를 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서면서 물밑듯이 들이닥치는 여러가지 사상조류와 날로 심입되는 반제반봉건적인 투쟁현실은 그로 하여금 그때까지 견지해오던 민족자강론을 근간으로 한 자기의 주장과 방략을 재검토하면서 기본적으로 폭력에 의한 “민중직접혁명론”을 받아들였으며 무정부주의에 기울어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1927년에는 “동방무정부주의련맹”에 가담하고 이 “련맹”기관지인 《동방》을 간행하였다.

신채호는 그 모진 시련속에서도 자기의 모든것을 민족의 독립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런 투쟁에 고스란히 바쳤다. 1928년 5월 신채호는 “동방련맹”의 위촉을 받고 민족해방운동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취득하기 위해 일본 모지(門司)를 거쳐 대만 기류항으로 가는 도중에 일본 해상경찰에게 체포되었다. 그후 대련 일본형무소에 인도되어 2년나마 소위 미결수

로 심문받다가 1930년 4월 억울하게도 “10년형”을 언도받고
려순감옥에 갇히었다. 령어의 몸으로 갖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민족의 기개를 떨치며 단호히 투쟁하였다. 1931년에 이르러
그의 건강이 몹시 악화되자 옥사뒤에 올 사회적여론이 두려워
일제는 그의 조건적보석을 통고하였다. 이때 친일자본가인 한
친척이 나섰으나 그의 정체를 알게 된 신채호는 그에게 자기의
여명을 위탁할수 없다고 단연 거절하였다. 실로 그는 서서 죽
을지언정 엎디여 비굴한 삶을 구걸하지 않았다. 그러던 그는
그렇게 갈망하던 민족의 독립을 보지 못하고 1936년 2월 21
일 56세를 일기로 옥중에서 그 빛나는 생애를 마쳤다.

주요섭은 한국현대문학사에서 한페지를 장식하는 저명한
소설가이다. 그는 1902년 평양에서 태어났고 아버지는 목사였
다. 호는 여심(余心) 또는 여심생(余心生)이라 하였다. 그는 또
한 시인 주요한의 동생이기도 하다. 그는 1915년에 평양의 숭
덕소학교를 졸업하였고 숭실중학교 3학년을 다니던 1918년에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학원(青山学院) 중학
부 3학년에 편입되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귀국하여
지하신문을 발간하다가 출판법 위반으로 10개월의 형을 받았
다.

그후 그는 1920년에 중국으로 건너와 소주(苏州) 안성중학
(安晟中学)을 다녔고 1921년에 상해 호강대학(沪江大学) 부속
중학교를 졸업하였다. 1927년에는 호강대학 교육학과를 졸업
한후 그 이듬해에 미국으로 건너가 스탠포드대학원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1929년에 귀국하였으며 1931년에 동아
일보사에 입사하여 《신동아》의 주간으로 일했다.

그러다가 1934년에 다시 중국으로 건너와 1943년까지 9
년간 북경 보인대학(輔仁大学) 교수로 취직하였다. 광복을 2년
앞두고 그는 일제의 중국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